부석사 터는 상서로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서봉포란형이다.

최연의 산 이야기 <38> 소백산 6

봉황의 나래에 화엄이 꽃폈다

백두대간 태백산에서 소백산에 이르는 지형을 양백지간(兩百之間)이라고 한다. 태백산에 가까운 북쪽지역은 산이 험준하고 골이 좁아 사람이 기대고 살만한 터전이 별로 없다. 이에 반해 소백산에 가까운 남쪽지역은 산들이 수려하며 유장하게 뻗었다. 그 산줄기 사이로 널찍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 대대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양백지간은 동쪽으로 홍제사가 자리한 청옥산과 각화사가 있는 각화산 근방에서 시작된다. 양백지간은 예로부터 유불선(儒佛仙)이 함께 꽃핀 성지였다.

화엄종 중심도량인 부석사와 선풍을 크게 떨친 각화사,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선생을 배향한 소수서원과 선도(仙道) 수행자들은 깊은 산중 곳곳에서 끊임없이 수련했다.

〈택리지(擇里志)〉에 "각화사와 홍제암 사이엔 가끔 불법이 높은 중과 이상한 무리가 들어와 산다" 했는데 '이상한 무리'가 선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다.

각화산 중턱에 자리한 각화사는 신비로운 도량으로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무애국사가 중창했다. 조선 정조 때는 800여 승려가 운집한 3대 사찰의 하나였다.

각화사에서 앞을 바라보면 멀리 봉화 쪽으로 수많은 산줄기들이 물결처럼 펼쳐진다. 신선들이 줄을 지어 늘어선 형상, 즉 신선족대(神仙族隊)이다.

그래서 불도(佛道)와 선도(仙道)가 하나로 만나 많은 성인(聖人)들이 나온다고 하였나 보다.

각화사 동편 산록에는 동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빼어난 수도 터로써 근세에 이름을 날린 선승들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갔다. 동암 뿐 아니라 각화산 골짜기 곳곳에는 토굴에 은거하여 용맹정진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

각화사에서 산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태백산 사고지(史庫地)가 있다. 삼재(三災)가 침입하지 않는 길지라서 여기에 실록을 보관했다.

양백지간의 중앙에는 부석사(浮石寺)가 있다. 부석사는 태백산 아래 봉황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 가서 중국 화엄종의 제2조 지엄 스님에게 8년간 화엄학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와 화엄사상을 널리 폈고 화엄종의 도량들을 많이 지었다. 그중에서도 부석사는 화엄종찰(華嚴宗刹)로서 화엄종의 명실상부한 중심도량이다.

태백산에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서쪽으로 뻗어가던 백두대간은 태백산과 소백산의 중간쯤에서 선달산을 솟아 올린다. 이곳 선달산에서 산줄기 하나가 백두대간과 갈라져 남쪽으로 향하는데 이 맥이 수십 번 솟구쳐 오르며 달리다가 우뚝 멈춰서서 크게 힘을 모아 부려놓은 봉우리가 봉황산이다.

봉황산(鳳凰山)은 봉황처럼 생긴 산 중턱에 부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부석사 터 형국(形局)은 상서로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서봉포란형(瑞鳳抱卵形)으로 명당이다. 부석사의 조산(朝山)은 안동의 학가산인데 멀리 백 여리나 떨어져 있다.

백두대간과 봉황산, 학가산 사이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뭉게구름처럼 펼쳐져 있다. 선달산을 지나 소백산을 거쳐 도솔봉에 이르는 백두대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줄기들은 모두 우백호가 되는데 부석사를 겹겹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부석사가 기대고 있는 봉황산은 구름 위 하늘에 둥지를 튼 봉황이다. 이와 같은 형국의 명당을 신선이 구름 속에 앉은 격인 운중선좌격(雲中仙座格)이라 하는데, 풍수학에서는 이런 형국의 땅에는 많은 도인(道人)들이 나온다고 한다.

부석사 창건 이후 화엄사상을 배우러 몰려든 수가 무려 3000 여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아성(亞聖)이라 불린 고승 대덕도 열 명이나 된다. 그 외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 등이 그들이다.

부석사에서는 영풍, 봉화, 안동, 예천, 문경 의 5개 군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풍수학에서는 부석사와 같이 시야가 넓게 펼쳐지면 그 터전의 기운이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은 그 제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아득히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면 문득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곳에서 수행을 하면 뭇 중생들을 품어 안으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만 같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나무보일러 그리고

웬일일까? 경찰차가 집 앞 길을 지나 산 위로 올라간다. 경찰차의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윗집 임 씨네 집 연통 위로 연기가 꾸물꾸물 피어오른다.

임 씨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나무보일러를 놓은 때가 작년이었다.

"꽁짜로 마을 나무를 다 베어 때잖아. 저게 다 돈을 버는 거여."

일찌감치 나무보일러를 설치한 동팔이 아버지를 가리키며 비비 꼬아 욕을 하던 임 씨였다. 심야보일러 전기료가 갈수록 많이 나온다며 인상을 찌푸릴 대로 찌푸리곤 하더니 기어이 나무보일러를 놓았다. 그동안 동팔이 아버지가 '꽁짜'로 겨울을 나는 걸 보며 배 아팠던 날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셈이었다.

나는 몇 년 전에 나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했다. 동팔이네가 '꽁짜'로 나무를 베어 땐다며 욕하는 소리가 나를 향한 소리이기도 하다는 걸 왜 몰랐겠는가? 비록 간벌작업이 끝난 곳에 가서, 베어놓은 잡목들을 가져다 때는 것이었지만, 산림청 공무원과 부딪혀 '이거 어디서 벤 것이냐'고 추궁을 당했던 경험도 씁쓸했다. 나무도 공짜가 아니었다. 무거운 나무를 옮기다, 부실한 허리가 '삐긋'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곤 해서 겨울 내내 허리통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눈이 쌓인 한겨울에 땔감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다. 그땐 다른 도리가 없어 마을 입구의 아카시아 숲에 가서 나무를 벴다. 혹여 누가 볼까, 신고가 들어가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으니 그게 어찌 공짜였던가?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연탄을 들여 때니 세상살이가 편하면서도 경제적이었다.

톱 소리가 예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단 사람 사이가 어긋난 까닭이 크다.

임 씨는 '꽁짜'로 겨울을 나는 게 신이 났던지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도 부지런히 딸딸이(폐차된 농업용 트럭을 개조한 차)를 몰고 다니며 나무를 날라다 땠다. 바라보면 확연히 보이는 윗집이다.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 소리가 '위윙' 수시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톱 소리가 예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단 사람 사이가 어긋난 까닭이 크다. 임 씨는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면서부터 나하고의 사이가 벌어진데다 요즘은 축사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그런 나에 비한다면 심각하다는 표현을 써야할 만큼 사이가 벌어진 사람이 있다. 축사 위에 살고 있는 조 씨다. 두 사람의 집은 우리 집과 임 씨 축사 사이보다 더 가까울뿐더러, 십 년 전 조 씨가 이사를 와서 집 공사를 할 때 도와주긴 커녕 길에 공사재료며 돌등이 구르고 있다고 타박을 하면서 내내 원수 같은 사이로 지내왔던 내력이 합쳐져 더 벌어지기 어려운 지경이다. 두 사람의 다툼소리가 내 집까지 들려오는 날도 흔하다.

열 집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마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마을 중앙에 커다란 축사가 들어섰는데 마을 회의도 열지 않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얘기 나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장에게 얘기를 하며 회의를 열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했다. 반장은 그러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는 오지 않았다.

"왜 좋아하겠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오래 살아오다보니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다들, 좋아하지는 않아."

어제, 오랜만에 놀러온 동팔이 아버지에게 축사 얘기를 꺼내니 내 시선을 피하며 한숨 쉬듯이 풀어놓은 말이다.

산책을 한다며 나갔던 아내가 들어서며 말한다.

"동팔이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그러네. 조 씨가 찔렀다고 그러는데, 윗집과 같이 나무를 하다가 함께 걸린 것 같아."

찌푸린 겨울 하늘 아래 무겁기 만한 날들이 흐르고 있다.

시인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금정사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

황금의 불탑 미얀마!!!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미얀마 성지순례는 안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지순례 !!!

■ 중국성지순례
2월 21일 출발
지장보살, 관음보살 성지순례 1,290,000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3월 2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